

## 호간케야키

운주산만타키 폭포를 지나 기쿠치 계곡의 두 산책로 가운데 긴 쪽에서 몇 걸음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 위에 솟아 있는 ‘호간케야키’에 다다른다. 화산성 바위에 거인의 손가락처럼 달라붙어 있는 굵은 뿌리는 침식에 의해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. 산 표면을 흐르는 물이 큰 바위 주위의 흠을 서서히 쓸어가서 이 나무는 지상에서 수 미터 높이에 올라가 있다.

느티나무는 튼튼하고 적은 영양분으로도 크게 자랐기 때문에 신비한 기운을 지닌 나무라고 믿어져왔다. 특히 ‘호간케야키’처럼 홀룡한 나무는 신령이 깃든 나무라고 생각되고 있다.